

## 삼국유사 피은편의 문화 기호학적 이해

A Cultural-Semiotic Study of Pi-eun pyon of Sam-kuk-yu-sa

---

저자 (Authors)	송효섭 Song Hyo Sup
출처 (Source)	<a href="#">비교민속학 11</a> , 1994.6, 117-137(21 pages) <a href="#">ASIAN COMPARATIVE FOLKLORE 11</a> , 1994.6, 117-137(2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비교민속학회</a> Asian Comparative Folklore Socie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9869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98694</a>
APA Style	송효섭 (1994). 삼국유사 피은편의 문화 기호학적 이해. <a href="#">비교민속학</a> , 11, 117-1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7 14:2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피은편의 문화 기호학적 이해

송 효 섭\*

## 차 례

- I. 문화 텍스트와 문화모형
- II. ‘숨음’과 ‘드러남’의 설화 논리
- III. 피은편 설화의 기호학적 유형분석
- IV. 맺음말

## I. 문화 텍스트와 문화 모형

삼국유사는 기이편 등 각 편들의 계기적 연결로 이루어진 텍스트이다. 삼국유사를 하나의 문화 텍스트<sup>1)</sup>로 본다면, 이는 이러한 각 편들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이질성이 내포된 텍스트로 나타난다. 여기서 이질성이란 단순히 설화 소재의 이질성을 넘어서 기호, 혹은 기호체계

\*서강대학교 교수

1) 문화 텍스트(culture text)란 문화의 의미단위로서, 문화적 시각 혹은 층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기호들, 혹은 확장된 기호들로 구성된 메시지로 나타나는데, 문화적 약호가 그 바탕이 된다.

cf. Irene Portis Winner, "Ethnicity, Modernity, and Theory of Culture Texts." Irene Portis Winner & Jean Umiker-Sebeok, ed. *Semiotics of Culture*(The Hague-Paris-New York : Mouton Publishers, 1979), p.108.

—, "Theories of Narration and Ethnic Culture Texts" Jerzy Pelc, et al, ed. *Sign, System and Function*(Berlin-New York-Amsterdam : Mouton Publishers, 1984), pp.440~441.

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이질성이야말로 삼국유사의 문화 텍스트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양한 의미, 다양한 기능, 다양한 양상들이 역동적 관계를 이루며 삼국유사라는 하나의 문화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과 함께 삼국유사는 문화 텍스트로서의 동질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결국 문화 텍스트는 하나의 문화적 시각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메시지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질성은 어떠한 방향으로의 지향에 의해 동질화될 수밖에 없다. 가령, 어떠한 문화적 시각에서 삼국유사의 문화 텍스트 속에서, ‘呪 : 佛’의 대립체계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삼국유사의 메시지는 이들 양상 사이의 대립과 통합이라는 역동적 양상을 통해 동질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삼국유사 피은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한 시각에서, 다른 편들과의 이질성과 아울러 삼국유사 텍스트가 지향하는 의미 속에서의 동질성이 함께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텍스트와 각편 기호 사이의 관계는 각편의 기호와 각편에 속한 각조의 기호 사이의 관계와 같다. 피은편의 각조 속에 실려 있는 설화 또한 다양한 의미, 기능, 양상을 갖는 이질성과 아울러 피은편이 지향하는 의미 속에서의 동질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 문화 기호학이란 이와같이 다른 기호체계들 사이의 기능적 상관관계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계기적으로 연결된 삼국유사의 각편은 하나의 메시지로 드러나지만, 삼국유사가 지향하는 의미의 동질성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병렬체를 이루기도 한다. 이는 각조의 설화들이 각편 속에서 계기적 연결관계를 갖지만, 또한 각편이 지향하는 의미의 동질성을 나누어 갖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병렬체를 이루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계층적 관계는 한편의 설화 텍스트의 의미가 삼국유사 전체의 문화 텍스트의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논리적 바탕을 마련한다.

이 글은 피은편을 하나의 문화 텍스트로 보는 시각에서 설화분석을 통해 삼국유사의 문화체계를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삼국유사 피은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숨기는 주인공들의 설화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숨음’과 ‘드러남’이라는 기본적인 양상

대립이 찾아진다. 이는 피은편 문화 텍스트를 통해 찾아지는 기본적인 문화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설화 속에서 드러나는 기호학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은 곧 설화 텍스트를 문화 텍스트로 기술하는 일이 될 것이다.

## Ⅱ. ‘숨음’과 ‘드러남’의 설화 논리

설화는 조종, 능력, 수행, 인정의 네 국면을 통해 전개된다.<sup>2)</sup> 이 중에서 능력과 수행이 주인공의 행동과 관련된 실천적 차원이라면, 조종과 인정은 이러한 행동이 갖는 의미 내지는 가치와 관련된 인식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숨음’과 ‘드러남’은 설화의 인정적 국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설화에서 인정은 본질과 현상, 즉 ‘있는 것’과 ‘나타난 것’의 관계에 의해 진실, 비밀, 거짓, 없음으로 드러날 수 있다.<sup>4)</sup> 있는 대로 나타나면 진실,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비밀, 있지 않은데 나타나면 거짓, 있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면 없음이 되는 것이다. 숨음과 드러남 역시 이와같이 있는 것과 나타난 것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문화적 의미 단위들이다.

숨음과 드러남은 각각 나타나지 않음과 나타남을 추구한다. 나타나지 않은 것과 있지 않은 것의 결합인 없음이 실제로 설화에서 실현될 수 없는 양상이라 한다면, 설화에서 숨음은 있는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의 결합인 비밀로, 드러남은 있는 것과 나타난 것의 결합인 진실 혹은 있지 않은 것과 나타난 것의 결합인 거짓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화에서 인정은 행위 주체의 과업 수행에 대한 것임

2) Groupe d'entrevernes, *Analyse sémiotique des textes* (Lyon : P.U.L., 1979), p.19.

3)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Paris : P.U.F., 1983), p.65.

4) Groupe d'entrevernes, 앞의 책, p.43.

로, 과업수행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의 행위는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되며, 이러한 설화는 있는 것을 드러내는 설화와 없는데도 드러내고자 하는 설화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드러남을 추구하는 설화는,

- ①비밀 → 진실
- ②비밀 → 거짓

의 설화가 가능하고, 숨음을 추구하는 설화는,

- ③진실 → 비밀
- ④거짓 → 비밀

의 설화가 가능하다.

드러남과 숨음은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러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변형은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 중에서도 특히 드러남과 숨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드러냄’과 ‘숨김’이라 할 때, 이들이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설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행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행위 주체는 자신의 과업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양상적 주체<sup>5)</sup>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이는 많은 영웅설화에서 흔히 드러나는 양상이다.

③과 같은 유형은 설화에서 자주 실현되지 않는다. 나타난 것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를 인식하는 양상적 주체는 이미 나타난 것을 나타난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설화에서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던 것을 모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양상적 주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나타나기 어려운

5) 양상적 주체는 행위 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미 내지는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cf. 위의 책, p.31.

것이다. 그러나 숨음을 매개하는 ‘숨김’의 행위는 이러한 양상적 주체의 ‘모름’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위 주체가 스스로 있는 대로 드러나기를 행위를 통해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존재로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와 존재가 비밀에 묻혀버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숨김’의 행위가 갖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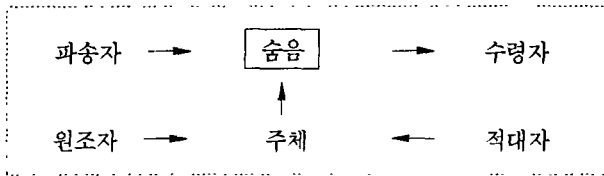
②와 ④유형은 실제로 그 구분이 어렵다. 숨겨진 것을 잘못 드러내거나 잘못 드러낸 것을 숨기는 것은 결국 모두 비밀이 또다른 비밀을 낳거나 거짓이 또다른 거짓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비밀과 거짓은 무엇을 ‘있는 것’으로 보고, 무엇을 ‘나타난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이들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감추어졌을 때 ‘있는 것’을 진실로 보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비밀이지만, 진실 대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나타난 것’으로 보면 ‘있지 않은 것’이 나타났으므로 거짓이라 할 수 있다.

피은편 설화에는 ①과 ③유형의 설화가 나타난다. 이들 설화에 개입된 행위는 어떠한 가치추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중 숨김의 행위는 설화가 추구하는 가치의 반대방향으로 설화를 끌고 간다. 대부분의 설화는 드러냄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화에서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이고, 이러한 가치평가는 대개 인정의 국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 주체가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할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숨김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설화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 의미가 숨어 있음을 말한다.

숨음의 매개가 되는 숨김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숨음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행위향도식<sup>6)</su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A.J.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Paris : Seule, 1966), pp.172~191.

행위형이란 설화의 동사론적 관계 속에서 그 기능에 의해 정의되는 인물의 추상적 형상을 말한다.



먼저 주체와 숨음 사이에는 주체의 숨고자 하는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숨김의 설화는 행위 주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주체의 욕망과 관계없이 대상을 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파송자의 ‘앎’의 파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송자에 의해 제시되는 이야기 가치의 문제는 설화의 이념적 측면과 관계된다. 주체가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이전에 이러한 것이 갖는 가치가 전달됨으로써 제시된다. 따라서 숨김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그것이 갖는 의미 내지는 가치가 이러한 파송자 및 수령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파송자는 설화에서 /본질/과/비존재/를 함축하는 존재로서<sup>7)</sup>, 드러나지 않으면서 설화의 전개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파송자는 오히려 행위 주체보다 앞에 있어서 우위에 놓일 수 있는데, 따라서 숨김의 행위가 갖는 의미는 파송자의 성격으로부터 찾아지기 쉬운 것이다.

파송자는 설화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행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양상적 주체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숨김의 설화에서 행위 주체는 양상적 주체에 의해 제시되는 가치자체를 목적으로 행동한다. ‘숨음’이 바로 그 가치이다.

원조자와 적대자는 설화에서 이야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끌고가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나 숨김이라는 행동, 특히 자신을 숨기는 행위에는 원조자와 적대자의 존재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강탈을 위한 시련이나 투쟁이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에는 힘

7) Hénault, 앞의 책, p.20.

의 도움이나 방해가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원조자는 설화의 긍정적 측면을 표상하는 힘으로 적대자는 설화의 부정적 측면을 표상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는 ‘드러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향도식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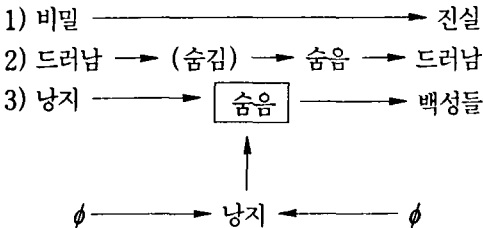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삼국유사 피은편 설화들의 언술 및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 보기로 하자.

### Ⅲ. 피은편 설화의 기호학적 유형 분석

삼국유사 피은편 설화의 주인공들은 어떤 형태로든 숨음이나 드러남의 가치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행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숨음과 드러남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화 텍스트의 양상을 기술해 보기로 하자. 행위 주체로 드러나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축으로 삼고 분석에 임하기로 한다.

#### • 낭지승운보현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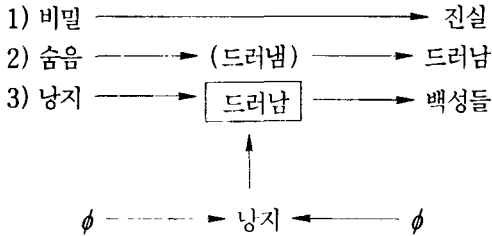
1. 이상한 중이 있는데 — 동리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스님도 역시 성명을 말하지 않고 — 신통력이 있었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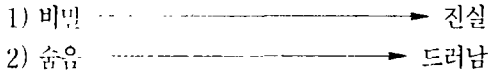
8) 이 글에서 인용된 자료는 《삼국유사》 권상로 역(서울: 동서문화사, 197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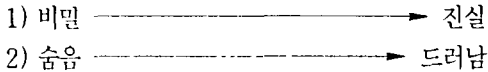
2. (지통이) ‘낭지사가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니 — ‘내가 낭지다’



3. 성인이 사사했으니 낭지사의 도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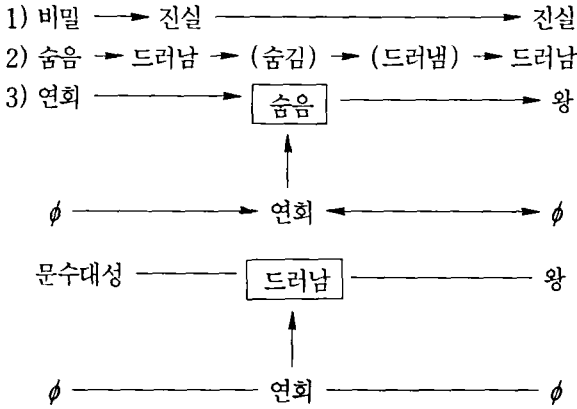


4. 대중을 따라 강을 들고 --- 거쳐하는 곳을 알지 못했다. --- 산 중의 기이한 나무 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서 바치니 — ‘이것은 반드시 성자이다’ 하고 — 해동의 영취산에 사는 줄 알았다. — 이름이 안팎에 드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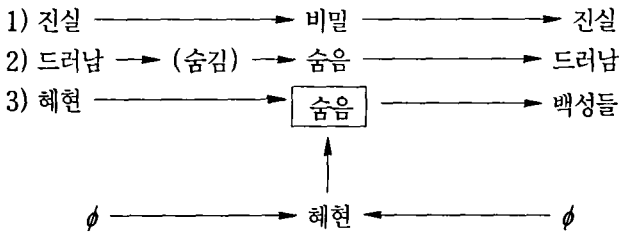
• 연희도명문수집조

1. 연희는 일찍이 영취산에 숨어서 — 원성왕이 그 이상하고 상서로움을 듣고 불러서 국사를 삼고자 했다. — 이에 암자를 버리고 도망하여 영감이 듣고 ‘여기서도 장사할만한데 하필 멀리 팔려 하는가, 이름을 팔기가 싫지 않은가 보군’ 한다 — 연희가 받아야 할 것임을 알고 이에 따라 대궐에 나아가니 —



• 해현구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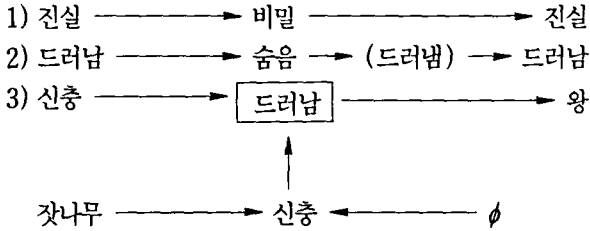
1. 사방에서 교화를 흠모하여 문 밖에는 항상 신발이 그득하였다. — 적이 번잡한 것이 싫어 드디어 강남의 달라산으로 가 있었다. — 시체를 메다가 석실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다먹고 해골과 혀만 남았는데 3년이 되어도 허는 오히려 붉고 부드러웠다. — 승려나 속인이 모두 공경하여 석탑에 보관했다. — 당나라에서 전기를 지어 그 명성이 드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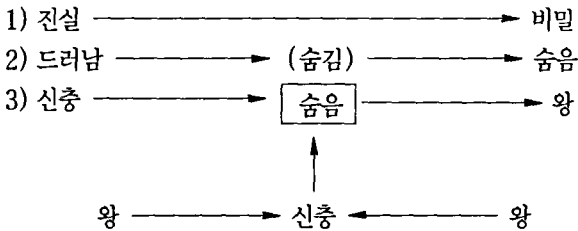
• 신충괘관

1. 현사 신충과 궁정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며 — 공신들에게 상을 줄 때 신충을 잊고 차례에 넣지 못했다. 신충이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 (왕이) 이에 불러서 벼슬을 주니 나무가 다

시 살아났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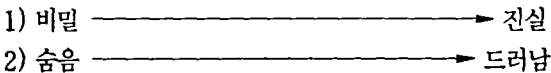


2. 이로부터 두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 (신총이) 남산으로 들어가 두 번씩 불러도 나오지 않았다. — 산에 숨어 대왕에게 복을 바치겠다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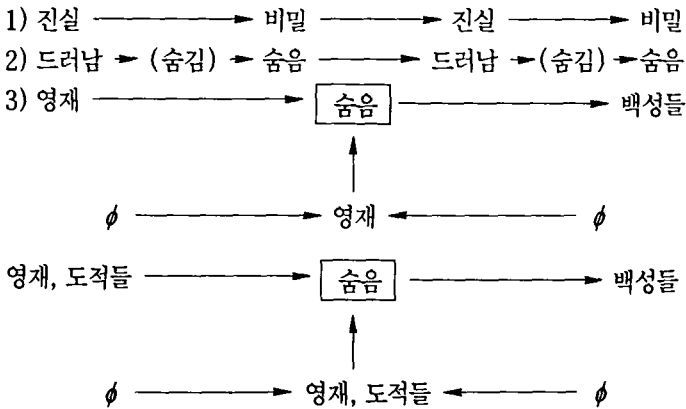
• 포산이성조

1. 신라 때 관기 도성 두 성사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나 함께 포산에 숨어 있었다. — (도성이) 하루는 바위 틈으로 몸이 뚫고 나가서 전신이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간 곳을 알지 못했다. — 관기도 역시 뒤를 이어 眞으로 돌아갔는데 — 이것은 이 두 성인의 감응이요 혹은 산악신의 도와춤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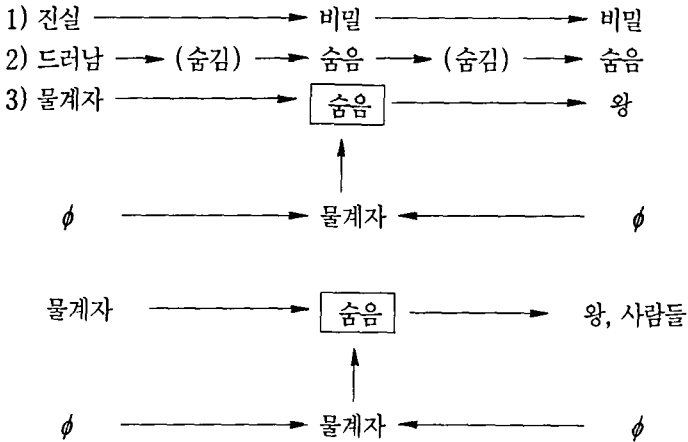
• 영재우적

1. 중 영재는 천성이 활달하여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다. — 늙은 나이에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관령에 이르러 — 도적이 그 뜻에 감격하여 비단 두 필을 주니 — 도적이 또 그 말에 감동하여 모든 창과 칼을 던지고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숨어 다시는 세상을 엿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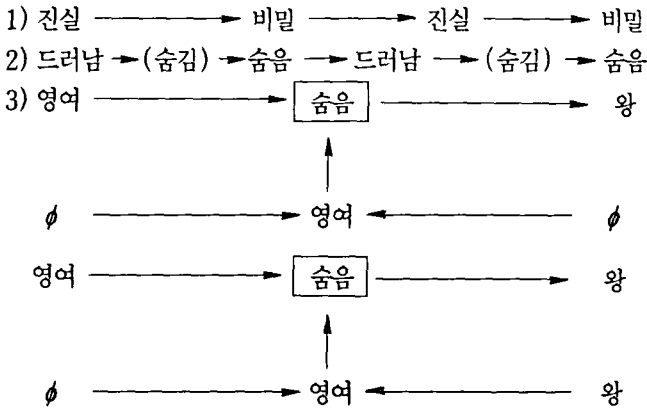
• 물계자조

1. 그때 물계자의 군공이 제일이었으나 태자에게 혐의가 있어 상을 받지 못했다. — 물계자가 ‘공을 자랑하여 명을 다투며, 자기를 찬양하고 남을 업페하는 것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니 힘써 때를 기다릴 뿐이다.’ 하였다. — 이에 머리를 풀고 거문고를 매고 사체산으로 들어가 —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 영여사조

1. 중 영여의 속성은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이 모두 높았다. 경덕왕이 맞이하여 공양하려고 사자를 시켜 부르니 — 절 문에 들어서면서 곧 숨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 왕이 이상히 여겨 국사를 삼았으나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국사방이라고만 칭송한다.



• 포천산오비구 경덕왕대

1. — 거기에 다섯 비구가 있었다. 성명을 알 수 없다. — 다섯 비구가 無常, 苦, 空의 이치를 설하며 형태를 벗어버리고 빛을 내며 서방으로 향해 갔다.

- 1) 비밀 —————> 진실
- 2) 숨음 —————> 드러남

• 염불사조

1. 그 절에 이상한 중이 있는데 성명은 말하지 않고 — 그 소리가 높낮음이 없이 한결같이 낭랑한 것이 이상하여 공경하지 않은 이가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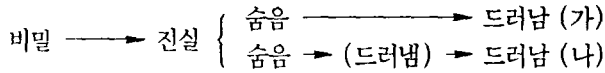
- 1) 비밀 —————> 진실
- 2) 숨음 —————> 드러남

이상의 분석에서 1)은 인정의 국면에서 양상적 주체의 상태에 대한 해석을 보여준다. 이들 설화 속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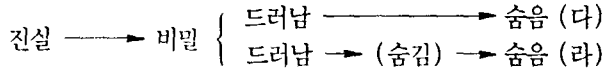
- 1) 비밀 —————> 진실
- 2) 진실 —————> 비밀

의 변형, 혹은 이들의 결합이 나타나고 있다.

진실은 있는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비밀에서 진실로 변형된 설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나도록 한다. 삼국유사 피은편의 설화에서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대개 주인공의 정체 혹은 그의 능력이다. 피은편 설화에서의 비밀에서 진실로 변형된 설화는 다시 자신이 스스로 있는 것을 드러내는 설화와 저절로 있는 것이 있는대로 드러나는 설화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는 2)의 분석에서 살펴질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분류는 진실에서 비밀로 변형되는 설화에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들이 앞서 분석한 삼국유사 피은편의 설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 보기로 하자.

(가) 유형은 낭지, 연희, 혜현, 관기와 도성, 영재, 영여, 포천사 오비구, 염불사 설화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설화들에서 주인공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없이도 그 존재가 드러난다. 주인공의 신통력과 뛰어난 도(낭지), 이상하고 상서로움(연희), 신이(혜현), 성인의 감응(관기와 도성), 노래의 깊은 뜻(영재), 이상함(영여), 서방으로 감(포천사 오비구), 소리의 낭랑함(염불사)을 통해 양상적 주체는 주인공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여기서 양상적 주체는 왕이나 일반 백성들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상적 주체의 능동적인 인식행위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양상적 주체는 행위 주체가 추구한 가치를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개 행위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은 합리적인 시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양상적 주체가 초월적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나) 유형은 드러냄의 행위가 개입되는 것인데, 낭지, 연희, 신충의 설화에서 드러난다.

낭지설화에서의 드러냄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친 것이다.

연희설화는 그 드러냄의 행위가 단순하지 않다. 드러냄의 행위 이전에 숨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위 주체의 본래의 욕망은 자신을 숨기는 것인데, 이러한 욕망이 좌절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문수대성의 앎의 파송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에서 드러남의 가치는 문수대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숨음과 드러남이 연회에게는 자유와 부자유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모두 이름을 파는 일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문수대성으로부터 얻게 된 것이다.

신충설화에서는 바로 자신이 파송자와 행위 주체가 됨으로써,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가치가 비롯되고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가치는 바로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다)유형은 숨김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채 숨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신충과 물계자의 설화에서 나타난다. 신충이나 물계자가 공신이라는 사실이 잊혀짐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숨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양상적 주체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만 잠시 진실이 잊혀졌을 뿐이다.

이 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라)유형이다. 숨김의 행위를 매개로 숨음의 상태에 이르는 설화인데, 이는 (나)유형과 대립을 이룬다. 앞서 분석한 설화들 중 낭지, 연회, 혜현, 신충, 영재, 물계자, 영여의 설화에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난다. 이들 설화 속에서 파송자는 모두 행위 주체 자신이다. 즉 숨음이라는 가치의 추구가 행위 주체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수령자는 왕, 혹은 일반백성들로 나타난다.

왕이 정치적 지배자라 할 때, 왕으로부터의 숨음은 탈정치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신충의 경우는 절에 숨어 왕에게 복을 바치겠다 하여 왕의 허락을 얻었다. 신충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드러냄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충의 설화에서 앞서의 드러냄은 뒤의 숨김에 통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계자 설화에서 숨김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난다. 첫번째 숨김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명을 다투지 않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 숨김은 자신의 할 바를 다하지 못하고 벼슬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이러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모두 왕으로부터



자신을 숨김으로써 가능했다.

숨음의 수령자가 백성일 때, 숨김의 행위 주체는 친숙하기보다는 더욱 이질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때에 따라서는 신비화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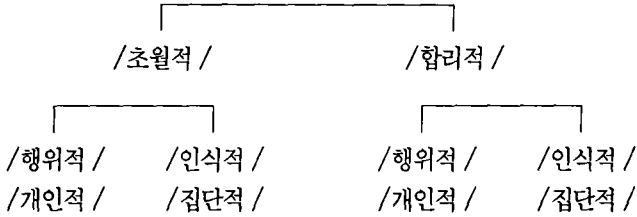
남지가 암자에 수십년을 있으면서 성명을 말하지 않아,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중으로 비쳤다. 해현은 번잡이 싫어 자신을 숨겼으며, 영재는 재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숨김으로써 더욱 신비한 존재가 되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 피은편의 설화들이 앞서 제시된 유형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문화 텍스트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들 설화의 심층구조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일관된 가치실현을 보여주는 의미층위들의 설정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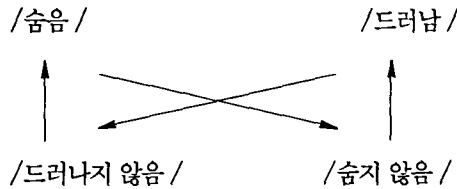
먼저 숨음과 드러남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초월적인가 합리적인가에 따르는 태도의 의미층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된 설화 속에서도 이러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의 태도는 숨음과 드러남에 관계되는 상태와 행위에 대한 양상적 주체의 인식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의 의미층위와 함께 설정되어야 할 의미층위가 방법의 의미층위이다. 여기서는 숨음이나 드러남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드러낸다. 이것은 앞서의 유형의 분류에서 제기된 행위의 개입여부와 깊이가 관련된다. 즉 숨음이나 드러남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행위없어도 숨음이나 드러남의 가치는 인식될 수 있다.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대개 그 행위 주체의 개인적 가치가 존중되지만, 단지 그러한 가치가 인식될 때, 이를 인식하는 양상적 주체는 다수의 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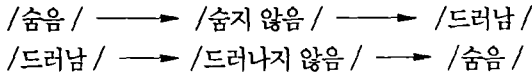
이들 의미층위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은편 설화의 심층적 구조 속에서 숨음과 드러남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기호학적 정방향<sup>9)</sup>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기본 범주 속에서 의미작용은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의미작용은,

- {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
- {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

라는 두 가지 주제에 의한 설화유형을 드러낸다. 이를 앞서 제시된 의미층위들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숨음과 드러남이 설화 속에서 갖는 총체적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 /초월적 /행위적 /개인적 /층위에서

9) cf. Groupe d'entrevernes, 앞의 책, p.138.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 모두 피은편의 설화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숨음과 드러남이 초월적으로 인식될 때, 초월적인 것은 스스로 숨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초월적 /집단적 /인식적 /총위에서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는 피은편을 비롯한 삼국유사 속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주제의 유형이다. 초월적으로 인식된 것이 드러날 때, 이는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하지만, 곧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가령 신통력은 초월적인 존재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분석한 (가)유형의 설화가 바로 그러한 예다. 종교적인 신비체험을 통해 인간의 초월적인 신념이 굳어지게 되는 삼국유사의 많은 설화들의 주제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는 피은편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초월적으로 인식된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은편의 설화는 대개 인간의 ‘숨는’ 행위가 개입된 설화다.

\* /합리적 /행위적 /개인적 /총위에서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는 합리적으로 인식된 존재가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이다. 이는 (나)유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특히 신충의 설화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벼슬을 받고 못받는 것은 인간의 공명과 직결되고, 이를 얻는 것이 삶의 가치로 생각된다. 유교적인 충의 이념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는 합리적으로 인식된 존재가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숨기는 경우이다. 이는 (라)유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명보다는 지사의 길을 택하고, 부끄럽게 드러내기보다는 떳떳하게 숨는 길을 택한다. 또 재물에 얽매

이기보다는 재물로부터 자유롭고, 번잡한 삶보다는 적요한 삶을 택한다. 이러한 것은 유교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자의 길을 택함으로써 영원한 삶이나 가치를 얻으려는 종교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숨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데, 이는 자신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 /합리적 /인식적 /집단적 /층위에서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는 합리적으로 인식된 존재가 양상적 주체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경우이다. 과업수행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설화라 할 수 있는데, 피은편의 설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 유형의 설화에서의 주체는 대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초월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영웅담이나 영웅소설, 근대 이후의 많은 서사체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가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는 합리적으로 인식된 존재가 양상적 주체에 의해 비밀로 인식되는 경우인데, 피은편의 (다) 유형의 설화에서 드러날 수 있다. 신중이 벼슬을 얻지 못함으로써 숨음의 상태에 이른 것은 양상적 주체인 왕이 그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곧 회복되므로 설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은편에서 구현되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가령 이인담과 같이 양상적 주체에 의해 신비화된 주인공의 설화는 드러남이 전제된 채 숨음이라는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행위는 하지 않지만 대단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숨음 자체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기는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숨음과 드러남의 대립항들 사이의 역동적 관계가 다양한 층위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살펴졌다. 같은 층위에서도 이들 양항간의 대립과 갈등이 드러나고 있으며, 층위들간의 계층관계에 의해 이러한 대립의 통합이 결정되기도 한다. 앞서의 분석에서 네 개의 층위가 설정되었는데, /초월적/행위적/개인적/층위는 피은편의 설화에 드러나지 않고, /초월적/집단적/인식적/층위에서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가 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초월적으로 인식되는 존재는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드러남은 행위없이 인식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는 행위보다는 인식이 강조된 설화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식적/집단적/층위는 피은편 설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반면, /합리적/행위적/개인적/층위에서는 숨음이 부정되고 드러남이 긍정되는 설화와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설화가 모두 나타난다. 합리적으로 인식된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하게 되며, 숨는 행위와 드러내는 행위가 맞서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피은편의 대부분의 설화는 합리적 존재가 자신을 스스로 숨김으로써 드러남이 부정되고 숨음이 긍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신총패관조의 설화 역시 초점은 뒷부분 신총이 자신을 숨기는데 있다. 이와같이 숨음과 드러남의 양항대립은 층위에 따라 그 역동적 통합관계가 달라진다. 즉,

/초월적/인식적/집단적/	드러남 > 숨음
/합리적/행위적/개인적/	드러남 < 숨음

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층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피은편의 설화들은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존재가 스스로를 숨기지만, 그럴수록 초월적으로 인식되는 존재로서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피은편 설화는 개인적 행위보다는 집단적 인식을, 합리성보다는 초

월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행위적/개인적/층위는/  
초월적/인식적/집단적/층위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위  
층위의 '드러남<숨음'은 상위 층위의 '드러남>숨음'에 의해 통합되  
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드러남 < 숨음) < (드러남) > 숨음)

이와 같은 문화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술은 단순히 설화 텍스트  
분석을 넘어서 문화 텍스트의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행동이  
초월적 인식 속에서 결정되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더 큰 존재에 다가  
간다는 신념은 단지 피은편뿐 아니라 삼국유사의 문화 텍스트를 떠받  
치는 문화적 약호가 아닌가 생각된다.